

운송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02. 6454-4879

02. 6454-4873

kiyeon.bae@meritz.co.kr

jungha.oh@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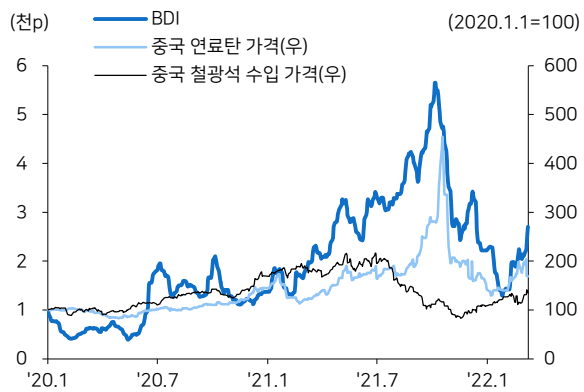
2022. 3. 11(금)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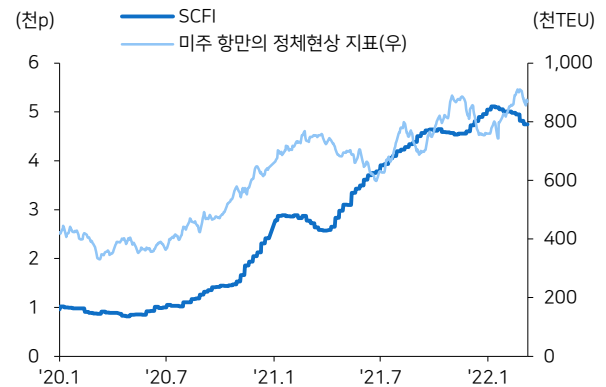
## 건화물운임(BDI)

2,704.0p(+146.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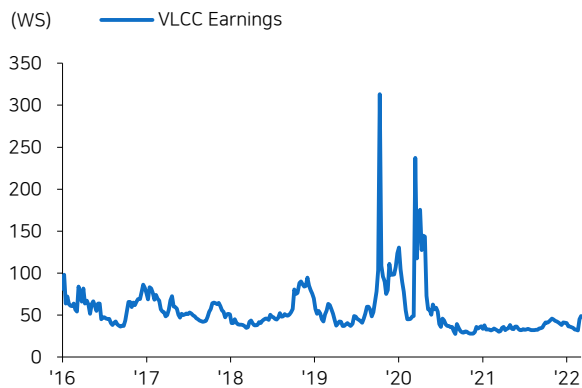
## 컨테이너운임(SCFI)

4,747.0(-71.5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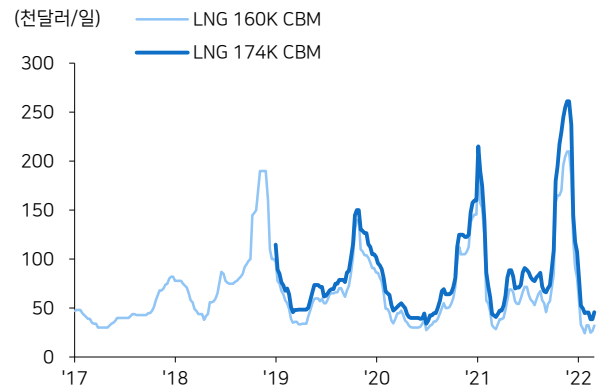


## VLCC Spot 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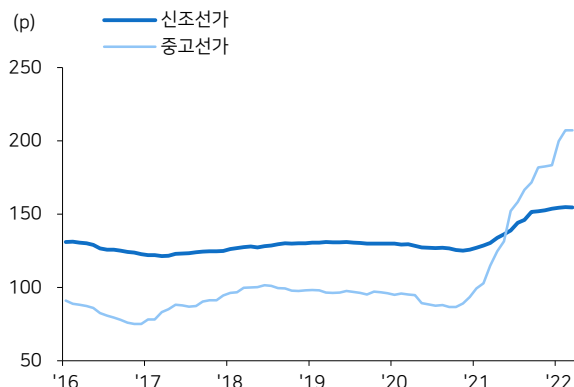
48.8(+3.6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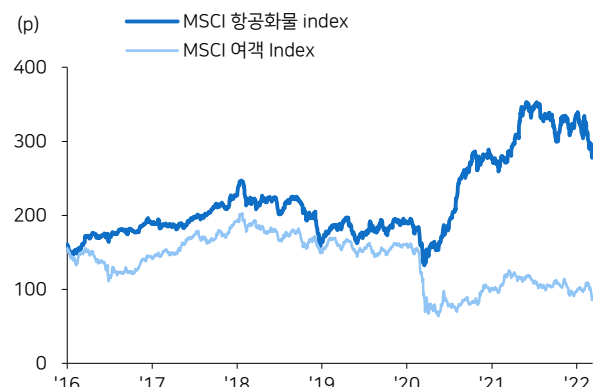
## LNG Spot 운임

32.0p(+5.5p WoW)  
45.8p(+7.0p WoW)

##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54.4p(+0.7p WoW)  
207.2p(+0.2p WoW)

## 항공시장 지표

290.6p(+11.3p WoW)  
90.7p(+4.1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 아시아나항공, 에어서울에 300억원 금전대여 결정

아시아나항공이 계열회사인 에어서울에 300억원 규모의 금전대여를 결정했다고 공시됨. 이는 자기자본의 2.75%에 해당하며 이자율은 6%임. 운영자금 대여로 계약기간은 오는 24일부터 2023년 3월 24일까지임. (아시아경제)

### 인도 '오미크론 종식' 분위기...2년만에 정기 국제선 운항 재개

인도가 오는 27일 0시부터 정기 국제선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함. 인도 정부는 COVID-19로 2020년 3월부터 국제선 이착륙을 전면금지한 바 있음. 인도의 일일 확진자 수는 2022년 1월말 34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급감해 8일 3,993명까지 감소하며 '오미크론 파동'이 종식되는 분위기로 알려짐. (에어진)

### 스크러버 수익률 확대

스크러버 수익률이 2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함. 현재 여러 선종 중 특히 탱커와 벌크선이 스크러버 덕을 많이 보고 있음. 유가 급상승으로 2010년산 scrubber-fitted VLCC는 non-scrubber fitted VLCC 대비 1,290달러/일 더 벌어들이고 있다고 보도됨. 일주일 사이 격차가 33.8% 확대됨. (선박뉴스)

### Tanker newbuilding order levels hit historic low, Affinity says

탱커 신조선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보도됨. 최근 7개월간 25척의 탱커만이 발주됐는데, 그 중 원유운반선은 6척뿐으로 알려짐. 탱커 수주잔고는 353척으로, 2012년 11월 이후 최저수준임. DWT 기준 2014년 10월 기준 최저수준임. 탱커 신조선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알려짐. 조선업체들이 가격인하 압력을 받고 있지 않고, 컨테이너, LNG선 발주가 활발한 영향도 크다고 설명함. (Tradewinds)

### Backhaul rate for capesize bulkers skyrockets as Australia pushes coal to Europe

호주가 유럽항 석탄 수출량을 확대하며 backhaul 운임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됨. 목요일(10일) C16 아시아-유럽항로 운임은 141%, 평균 Capesize 운임은 14.5% 상승함. 호주 정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원자재 수출이 중단됨에 따라 호주 Queensland 지역 석탄수출량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Tradewinds)

### 현대두산인프라, 터키 발전기 제조사에 엔진 2,400여대 공급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터키 국적 발전기 제조사 2곳에 3년간 총 2,400여대 규모의 엔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됨. 두 회사는 공급받은 엔진을 유럽·중동·아프리카로 수출하는 발전기에 탑재할 예정으로 알려짐. (연합뉴스)